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김주정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봄이 올 듯한 조짐이다. 우선 너무 춥다. 막바지 추위는 기를 쓰고 봄을 막아내겠다는 듯 완강하다. 으레 선거를 앞둔 해마다 그렇긴 했지만, 동네마다 핏대를 세우고 권을 가르는 풍경이 많아졌다.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대학등록금은 요지부동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는 서민들의 처진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럴 땐 지금은 기억에서조차 가물가물한 술 생각이 간절하다(건강 때문에 술 끊은 지 5년 됐다). 특히 옛것처럼 봄비도 아니고, 겨울비도 아닌 차디찬 2월의 비가 아침 가로를 추적추적 적실 즈음이면 대낮부터 풍나물 안주에 살얼을 살짝 떠다니는 막걸리 몇 잔 건넌다 싶어 걸치고 싶다.

### 살얼을 띄운 막걸리의 유혹

하여 더듬더듬 찾아본 시 한 구절. “낯술에는 밤술에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거나, 뭐 그런 것/ 그 금기를 깨뜨리고 낯술 몇 잔 마시고 나면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햇살이 환홍해진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

은 아담과 이브의 눈이 밝아졌듯...”(박상천의 ‘낯술 한잔 권하다’)

‘낯에 마시는 술’ 낯술에는 일상적이지 않는 특별함이 있다. ‘낯’이라는 시간대가 통상 열심히 일할 때이기 때문에 낯술에는 한량기가 가득하고, 방탕함마저 넘쳐

## 낯술 권하고 싶은 세상이지만

난다. 주위 시선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작하지만 이내 밝은 햇살과 휘기는 시너지 효과를 유발한다. 밝은 세상으로 술꾼을 안내한다.

마치 수술 중인 환자가 의식을 깨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엔지일 상에서 알아차리는 쾌감이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시원한 그 무엇이 있다. 몇 해 전 소설가 김병아가 ‘모진 계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밀폐된 방에 모여, 연탄을 피우고 혼자 죽기도 무서워 서로의 죽음에 주인공이자 고발자가 되는 지독히도 외로운 세상’을 답답해하다 ‘그렇다

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며 봄비에 젖어 지는 꽃잎에 물으며 낯술을 마신다고 썼던 글을 본 적이 있다. 안전선 너머에 있는 세상을 동경하는 작가의 간절함이 절로 묻어난다.

하지만, 낯술은 위험하다. ‘이까지 낯술 한 잔쯤이야’ 하며, ‘고뇌’하고, ‘거레’를 하고, ‘친목’을 다지지만 낮 시간 특히 정오 이후는 알코올에 가장 취약한 시간대다. 우선 낯술은 낮의 눈 때문에 밤술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빨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더 취하기 쉬운데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지어 예기치 못한 위험을 부른다.

낯술은 특히 외부인과 점심식사가 많은 공직자들 사이에서 골칫거리다. 파로에 따른 스트레스를 간단 명료하게 풀어주고, 일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단방약’은 같은 묘기를 발휘하기도, 어느 틈에 자신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흥기로 돌변한다.

지난 1999년 국민의 정부시절 기자들과 폭탄주 낯술자리를 가진 뒤끝에 “조폐공사 파업은 검찰이 유도했다”고 음모하(??) 취조진담을 해 버린 진 모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곧바로 ‘낯술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그 뒤로

도 공직사회의 크고 작은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낯술엔 악마적인 유혹이 상존하는가 보다.

### 낯술보다 무서운 봄 술 주의보

MB정부 들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이 낯술 마시지 말라는 공문을 수차례 하달했다. 급기야 지난 13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나서 “낯술 마시다 적발되면 당사자는 물론 상관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시·군·구의 경우 예산상의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당연한 지시이고, 잘 지켜지는 지 두는 부럽다고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낯술보다 무서운 술이 있다는 것을 박 지사나 전남도 공무원들이 아는 지 모르겠다. 봄 술이다. 봄엔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서 감정의 기복도 심해져 알코올에 더 의지할 수 있다. 봄기운에 들뜨고 모임이 찾아 술자리는 많아지는데, 겨우내 비타민 섭취가 적어 몸이 견뎌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봄 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다.

올 봄엔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국회의원을 뽑는다. 낯술 몇 잔에 세상이 환해지더라도, 더러 봄 술에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을지 모른다. 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인이 기다리고 있으니.

〈선일기자〉 jnews@kwangju.co.kr

## 시설

### 정부 대책 비웃듯 활개치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소위 ‘일진’을 중심으로 한 폭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이 이들 학생에게는 사실상 오폭파 다름 없다는 얘기다.

광주에서는 최근 ‘학교폭력 갈취 사슬’이 드러나는가 하면 갈취사슬에 올라 계좌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올린 뒤 판매사 기행각을 벌이는 등 갈수록 조직화되고, 수법도 대담해지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구 일대 중학교 1학년 사 이에 ‘쌍’으로 불리는 A(13)군은 인근 학교 중학생 B(13)군 등 2명과 초등학생 C(12)군을 협박해 22만 원을 상납 받았다고 한다. B군과 C군 등은 당초 A군이 요구한 40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자 같은 학교 후배들을 압박해 1차적으로 22만 원을 모아 건넸다는 것이다. A군의 협박과 강요가 갈취 사슬을 만든 셈이다.

### 해남 화력발전소 건립 추진 신중 기해야

해남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신중 추진론’이 대두되고 있다. 해남군민들 간 유지위원회와 저지대책위원회 나뉘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인근 기업도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들어 신중한 추진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박 지사는 이를 전 도청 실국장 토론회에서 “대규모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는 위치 선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발전소 예정지는 바람이 많이 불어 인근 영암·해남 관광객처럼 기업도시(J 프로젝트) 건립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셈이다.

해남군은 중국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받아 화원면 후산리 일대에 7조6000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찬성측은 1000억 원에 이르는 간접보상비, 고용, 세수 등을 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반면 반대측은 환경오염 등을 좌시한 채 돈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 부족사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발전소를 추진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환경피해의 소지가 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환경 파괴로 인해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전남에 청정해역, 수려한 자연풍광 등 천혜의 자원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 이런 바탕에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해남군은 노약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 등 조사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남도 역시 상급기관으로서 해남군을 설득하고 조정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은편칼럼



류동훈

지난 목요일 주차된 차 안에서 최근에 출간기념회를 한 은편칼럼 모음집 ‘은편세담’에 그동안 필자가 기고한 원 한 글들을 다시 되새겨 읽어 보면서 책에서 다룬 ‘지역 대중문화 살리기 운동’, ‘문화의 지방분권’, ‘방송국 본사의 지방이전’을 어떻게 현실화시켜 갈 것인가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빠리릭” 벨이 울리며 평소 애경하던 선배로부터 토요일에 충남 서천에서 열리는 ‘자치분권전국연대회의대회’에 같이 가자는 전화가 왔다. 순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이

### 개헌을 통한 자치분권 운동으로의 여행

런 제안이 오나 싶은 생각에 등에 ‘찌리리’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즐거이 간다고 약속을 했다.

2월 11일 토요일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관공버스에서는 43명의 지역사회 선각자들이 탑승해서 정확히 약속했던 11시에 출발했다. 보통 이런 버스출발 모임을 하면 지각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인데 정확한 시각에 출발할 한 것을 보며 참석 한 사람들의 마음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느낄 수 있었다. 막간을 이용해 충남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에 가서 맑고 상쾌한 바닷바람과 풍경을 즐기고,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 도착했다.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몰려온 1000여 명의 선각자들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입구에 있는 커피다과 책상에 가서 충청도 커피는 도대체 어떤 맛이냐 하며 맛을 보았다. 경남도지사,

충남도지사는 직접 참석하시고, 광주시장과 서울시장은 축하 동영상 보내 주셨다.

이날 행사장에서 채택한 선언문 중에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것은 바로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가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문단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난 10년의 제1기 자치분권운동이 국가균형발전선언으로 중앙정부를 살려주는 국부(國富)의 시대를 종결하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향부(鄉富)의 시대를 선언했다면, 제2기 자치분권운동은 자치분권형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모아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기고



김원호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젊고 혁신적인 CEO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지원에 머물렀던 기존 창업 지원제도와 달리 호남연수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업의 의지가 충만한 젊은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사업 준비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의 일대일 집중 코칭, 기술 및 제품개발 정비 활용, 단계별

### 청년창업자 파격 지원 합니다

사업비 및 마케팅 지원 등 창업단계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화 경험이 부족한 청년CEO를 자생력 있는 성공 창업 CEO로 양성하는 것이 호남연수원의 비전이다. 지원내용 또한 파격적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에게는 1년간 사업비의 70%, 최고 1억 원까지 기술개발비와 시제품제작비, 창업활동비, 마케팅비 등 단계별 사업비를 지원한다. 창업 준비 공간 및 창업계획 수립, 시제품 제작, 제품 양산, 판로개척 등에 대해 전담교수와 전문위원이 일대일 멘토링을 통한 밀착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안산 본원의 중소기업연수원이 갖춘 고가 장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이

가능하다.

선정 및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졸업 후에도 중간공의 다양한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호남연수원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장점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사업은 단순히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있고, 기업경영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예비 청년 CEO에게 체계적 역량 교육, 체험 훈련 등 실천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업경영은 여겨 너머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지식과 경험으로 체득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창업 CEO로서 꼭 알아야 할 기본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교육 등 업종 특성별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특화과

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간공 호남연수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청년 창업자의 창업 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과 코칭, 심리 상담을 통한 충만한 자신감과 창조적 직관력을 배양하도록 원-스톱(One-Stop)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호남연수원의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호남연수원만의 특전이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기업회의하기 좋은 곳 100선’에 선정된 무공해 청정 환경을 지닌 친환경적 연수원에서 개발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의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호남연수원은 청년창업사관학교 2차 지원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창업에 뜻이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비 창업 CEO에게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장〉

### 야생동물 데려와 키우는 것은 어설픈 동물사랑

TV프로그램 중 ‘동물농장’이라는 게 있다. 우리 주변의 가나 고양이를 비롯해 각종 애완동물, 혹은 야생동물의 세계를 재미있게 그려낸 프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시청자 모두를 함께 폭넓은 시청자층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가끔이 프로 내용 중 야생동물의 동물을 우연히 발견해 그 동물을 집에 데려다 키우게 되면서 정도 들고 이런저런 애환을 겪는 내용도 나온다. 큰 코요티나 멧돼지, 고라니, 노루 같은 동물들이 이따금 나온다.

애완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의 동물이 인간과 동화가 되어 함께 살며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게 신기하기도 해서 이런 경우 많은 시선을 끌기도 한다. 이동중 다쳐거나 혹은 가족의 무리중 불행하게 홀로 남겨져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되어 축은지심으로 데려다 키우는 경우가 이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야생동물을 인간이 데려다가 키우면 야생동물의 본성의 생선능력이 허물어진다. 집에서 어설픈 축은지심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야생동물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밀렵이다. 지리산에 풀어놓았던 반달곰이 밀렵 도구에 걸려 몸을 흔들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도 TV에서 자주 본다.

이렇게 인간에게 당했다 운 좋게 빠져나온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고 해마다 고 통스럽게 죽어갈 수 있는 것도 자연상태의 동물이다.

이미 상위 먹이사슬이 사라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고라니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견된다. 그런데 이 고라니의 예를 보면 어미는 먹이를 찾을 때 새끼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주변 풀을 씹어두는 습성이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혼자 있는 새끼를 발견하고는 불쌍하더라 데리고 나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즉 자연상태의 독특한 습성을 모르는 인간의 무지가 고라니 가족을 해체시켜버리는 것이다.

인간에게 발견돼 따로 길러진 고라니들이 나중에 제대로 자연에 적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실패할 경우 그 고라니는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인간이 길러줘야만 한다. 사람과 너무 친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사 이후에 자연에 적응하는 자연적능 능력훈련을 하기는 하지만 그계 수포로 돌아가면서 허사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야생동물의 동물을 어설픈 축은지심으로 데려다 불쌍해 주는 무리를 범하지 말도록 조심하자. ▲윤현숙·순선시 안동동

## 無 等 鼓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박중독자였다. 그는 자신이 룰렛 도박에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두번째 아내 안나와 떠난 유럽여행에서도 룰렛 도박에 빠져 가진 돈을 탕진하고, 아내의 치마와 결혼반지, 귀걸이를 전당포에 저당 잡혔다고 한다.

그는 도박에 빠졌던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토록 수많은 감각들이 나를 지나쳐갔지만, 내 영혼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른다. 오로지 초조하게 안달이나, 여전히 더 많은 감각들에 대한 갈망으로 넘쳐난다. 나의 정신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도 도박에 대한 갈망은 강해져만 간다.”

중독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도박중독, 쇼핑중독, 인터넷중독, 알코올중독, 섹스중독, 운동중독, 마약중독 등이 대표적이다. 스타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경우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 그를 너바나의 키트 코벤인, 기타의 신이었던 지미 헨드릭스, 가수 겸 영화감독 짐 모리슨, 그룹 롤링스톤스의 브라이

엔 존스를 비롯해 최근엔 마이클 잭슨도 약물중독으로 세상을 등졌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는 섹스중독이라고 시인했다. 위대하다거나,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중독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중독의 문제점은 중독자들 스스로 자신이 중독됐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다, 정도가 심하면 심지어 그 자기 패해를 준다. 최근 종교에 심취한 사 이나 목사부부가 독간에 걸린 자녀 3명을 감금한 채 수일간 굶기고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이들 부부는 ‘아이들에게 벌은 잡귀를 몰아내기 위해’ 성경의 구절에 따라 아이들을 39대 4 차례나 폭행했다. 죽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기도까지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맹목적인 추종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에게는 치열한 믿음이자 신임이었지만, 이 정도면 종교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kwangju.co.kr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회장 <b>金鐘元</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港樂</b> 편집국장 <b>曹庚完</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11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통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사건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68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